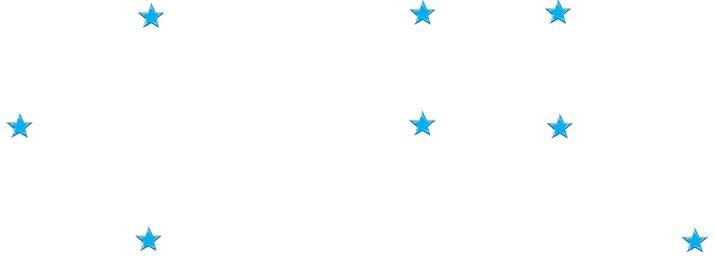




공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Contents



0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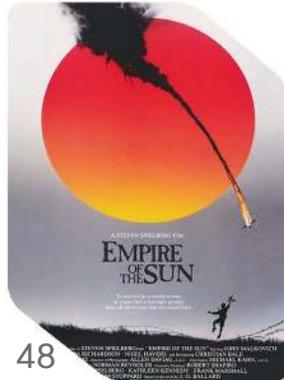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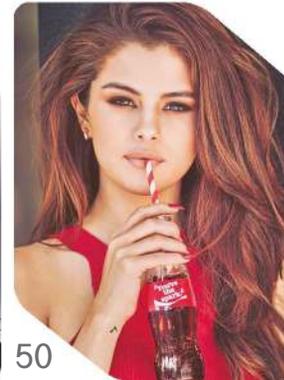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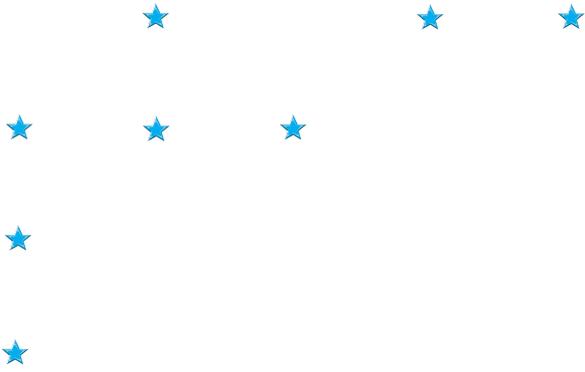
42



48



50



2017 October

R.O.K AIR FORCE
VOLUME 472

공군 IN

06 Pioneer's Opinion	패션산업의 변화와 패션4.0 시대의 군복(남윤자 교수)
08 기획특집 ①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24 포토 프레임@AF	9월의 참모총장 동정
26 Air Force Monthly	9월의 공군 소식
28 기획특집 ②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 여기서 시작합니다
30 기획특집 ③	압도적인 힘으로! 한미공군 무력시위
32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도서관
34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전투조종사들을 지키는 하늘의 등대
36 조인, 조인!	SF 작가 배명훈
40 신고합니다!	3훈비 병장 김우준 & 이병 최재영
42 Fitness	반복되는 속쓰림? 기능성 위장장애



GLOBAL & INSIGHT

44 Air-power Report	첫 공대공 미사일이 되자!
46 공군 재무관리본부	나의 신용은 내가 지킨다!

표지(앞)
공군본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공군인
사진 하사 김재겸

커버스토리
글 중위 이준건(홍보과)

CULTURE 36,5

48 Hollywood English	태양의 제국
50 트렌드가 보인다	인스타그램으로 '역'을 번다고?

발행일자 2017년 10월 1일(통권 제472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광근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한상균

편집감수 대령(진) 윤영삼, 소령 박윤서

기획·편집 중위 이준건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7090380)

(910-4504, 042-553-4504)

OPINION

52 생각하는 그림	표정,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
54 담벼락	도서관
56 책 읽는 공군	냉정한 이타주의자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ioneer's Opinion

패션산업의 변화와 패션4.0 시대의 군복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를 졸업한 뒤, 의복인간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패션최고 경영자과정 주임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테크니컬 디자인협회 회장, 국제미래학회 미래의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역만장자 천재 발명가인 토니 스타크는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 자신의 목숨과 세계를 지킬 강화 슈트를 제작하고 '아이언 맨(Iron Man)'이 되어 범죄와 싸워나간다. 과학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아이언 맨 슈트는 비행능력·원력 강화·핵폭탄을 막는 보호막·자력(磁力)으로 적의 무기를 반사하는 기능·발칸포와 미사일 등 수많은 무기가 장착된 천하무적 갑옷이다. 패션4.0 시대의 '스마트 군복'은 이처럼 상상력을 첨단과학의 힘으로 이루어 낸 꿈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옷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밀착되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모든 옷을 집에서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시작한 의류의 역사는, 사회·정치·경제·과학기술·예술·기후 등 시대적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거듭하며 거대 패션산업으로 발전하였다.

패션산업은 산업혁명의 진화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1차·2차·3차 산업혁명을 거쳐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접목하며 계속 변화·발전하고 있다.

패션1.0 : 18세기 초기산업사회

1차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수제 생산에서 공장 생산으로 생산의 큰 틀이 바뀌게 되었다. 패션1.0 시대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21세기 인류가 누리는 글로벌 경제 번영의 토대가 된 산업혁명의 중심에 패션산업이 있다는 것이다. 기계식 직기의 기계혁신을 통해 직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영국의 면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급속히 증가한 직물생산량은 다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패션2.0 : 19·20세기 산업사회 - 패션의 대중화

재봉틀의 등장으로 인하여 의류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패션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가능한 최초의 재봉틀을 프랑스의 재단사 티모니에르가 1830년에 발명했지만, 재봉틀 때문에 일감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공장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파산하고 말았다. 그 후 다양한 재봉틀이 개발되었으나 빛을 보지 못하다가 1850년, 아이작 싱어가 최초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며 재봉틀을 대량생산하였고, 의류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싱거는 자진하여 그의 공장을 군 부대설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재봉틀로 단기간에 튼튼한 군복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류 대량생산의 기틀이 닦이게 되었다. 옷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패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으며, 패션산업은 사회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패션3.0 : 1970년대 이후 정보화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패션은 마치 하나의 현상처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보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고가의 브랜드 제품만이 아니라 값싸고 변화주기가 빠른 패스트패션도 즐기게 되었다. 의류생산체계에도 패턴설계, 그레이딩, 재단 등 생산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다품종 소량생산뿐만 아니라 바디 스캐닝 기술, VR 기술 등 일대일 대량 맞춤 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패션4.0 : 모든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포용의 초연결사회

패션4.0 시대, 21세기 의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미래 패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기술은 우리의 상상 속에 머물던 다양한 옷을 현실 속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패션4.0 시대에는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스마트 소재, 기기와 패션이 만나고, 소비자의 취향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을 3D 스캐너,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구현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작 방식, 유통 채널의 다양화 및 통합화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패션4.0 시대의 군인은 최첨단과학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을 군복에 적용시켜 자국 군인들의 전투력과 생존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로 무장된 미래의 군복은 기후, 화학·생물학적 공격, 핵폭발에 의한 방사능, 화염, 음향, 충격 등에 의한 위험과 혹독한 전장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고, 군인 각 개인의 체형, 체력, 취향까지 고려하여 최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글
 이도아
 (공감기자)



사진
 중사 조수민
 (홍보과)



동트기 전 새벽 4시. 어두운 밤하늘을 머리에 이고 인천으로부터 진주까지 무려 5시간의 여정을 자처한 까닭은, 2016년에 우리나라 군 도서관 중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공군교육사령부 병영도서관(이하 교육사 도서관)에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긴 발걸음 끝에 만난 교육사 도서관. 도서관 입장에서부터 퇴장까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에 대하여, 지금부터 막이 오르니 기대하시라!

당신의 꿈을 열람하는 곳, **공군교육사령부 병영도서관 체험기**

찾고 읽으면 행복해요

교육사 도서관의 슬로건은 '찾는 기쁨, 읽는 행복, 모두가 함께하는 학술정보관'이다. 만화책부터 철학책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꼭 발견할 수밖에 없는, 7만여 권의 다양한 장서가 구비된 2층 규모의 도서관. 이것이 군 도서관을 소개하는 첫 마디라면 그대는 믿을 수 있겠는가. 보통 군에 있는 도서관이라면 작은 도서관 또는 이동식 도서관을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군 도서관계의 강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마련된 병영도서관이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언뜻 보면 잘 지어진 갤러리 카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곳. 군 도서관답게 군사(軍事) 장서와 일반 장서가 별도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책뿐만 아니라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DVD 대여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상영 공간 또한 관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호기심에 끌려 DVD 상영 공간을 체험해보니, 파티션을 통해 공간이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헤드폰을 통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영화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더불어 1층에는 소규모 강의실을 비롯하여 학습자료 열람 PC석·4인 테이블식·원형 소파 등이 마련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다채로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 와식의자

어디 그뿐이라. 2층엔 도서관 외벽을 따라 자리 잡힌 창가 테이블과 누워서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와식 소파 등 대형 문고나 대학 도서관에서 볼 법한 다양한 독서 공간이 존재했다. 기분 따라 카페의 분위기를 느끼며 혼자 독서를 즐기거나, 동료들과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스터디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필자는 그 중 특별히 이목을 끈 와식 소파에 누워 여유 있는 독서를 즐겼는데, 그 안락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 한 권을 완독할 수 있었다. 덧붙여 독서와 공부를 위한 공간인 열람실은 365일·24시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일과 후의 자투리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 도서대출시스템

도서관 100배 즐기기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군 장병들의 독서량 향상을 위해 특별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름하여 '학술정보관 100배 활용하기-독서 마라톤'이다. 마라톤 코스를 표방하여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책 1페이지를 1m로 환산하며 기한 내 책을 읽는 미션을 갖는다. 코스는 풀 코스(42,195페이지/11개월), 하프 코스(21,100페이지/8개월), 단축 코스(10,000페이지/6개월)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인의 재량에 따라 원하는 코스에 참가 신청서를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접수와 동시에 독서기록장이 배부되고 장병들은 이에 독서 내역을 기록하여 완주 후 검증을 받게 되는데, 완주하면 포상휴가나 기념품 제공 등 꽤나 푸짐한 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다 읽고 도서관을 나서는 길. 만리장성처럼 늘어선 제 각기 희망을 담은 뺨뺨이 꽃힌 장서를 보고 있자니, 흡사 우리 공군인의 미래와도 같은 울창한 숲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왔다. 고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꿈이 아름답게 꽃피는 곳, 교육사 도서관. 어쩌면 이 도서관이 최우수 병영도서관으로서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책에서 희망을 읽는 자들이 일궈낸 결실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글
진재훈
(공감기자)



사진
중사 조수민
(홍보과)

취재지원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책과 더불어 ‘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재미있어서 또는 교양과 상식을 위해. 혹은 유익한 책하려고(?) 읽는 사람도 있을 터. 그런데 이런 이유 외에 책을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책은 인생의 진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교육사 병영도서관에도 그렇게 꿈을 위해 책을 읽는, 책을 통해 꿈을 꾸는 장병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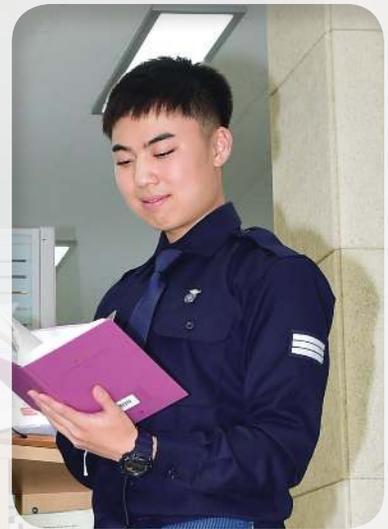
권용민 병장(병 760기)

교육사령부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대대 소속의 권용민 병장. 교육사 도서관의 최다 대출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압도적인 1위의 대출기록을 갖고 있어, 교육사 도서관 라혜정 주무관의 전언에 따르면 교육사에서의 대출 순위 다툼은 2~3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도 같다고.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일하다가 공군에 입대했다.



고홍근 병장(병 757기)

공군교육사령부 훈련단의 상징, ‘빨간 모자’. 그 아래 보일 듯 말 듯 매서운 눈매와 우렁찬 목소리로 수많은 훈련병을 훈육하는 조교는 공포의 상징이기도 하다. 본래 암전한 경영학도였지만 대한민국의 건아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조교에 자원했다는 고홍근 병장은 교육사의 ‘다독왕’으로 또 한 번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임승찬 상병(병 768기)

‘호수에 떠다니는 백조’. 사서를 표현하기 적절한 말이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편안할 것 같지만, 물속에서 실 새 없이 발을 움직여야 하는 백조처럼 사서는 보이지 않게 실 새 없이 일을 해낸다. 교육사의 도서관 근무자 중 하나인 임승찬 상병은 열렬한 다독가이자 작가지망생이다.



공군에서 맡고 있는 역할만큼이나
다양한 꿈을 꾸고 있는 그들. 그들의
인생에서 책은 뗄 수 없는 '인생 필수템'.
그렇다면, 세 사람은 어떤 책을 통해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AF: 요즘 읽고 있는 책과 더불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흥근 병장: 주로 정기간행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시사 이슈를 좋아하는데, 주간지나 월간지는 TV뉴스·일간지에 비해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을 담아 식견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 먹거리와 같은 현재의 트렌드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주기도 하고요.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책을 통해 미래 사업의 방향을 한 가닥씩 잡아가지기도 합니다.

권용민 병장: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있는데, 주로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습니다. 근래에는 '채식'과 '미니멀리즘'에 관한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채식이나 미니멀리즘이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듯, 저는 책을 통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승찬 상병: 저는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작가의 소양에는 글을 쓰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만의 개성 있는 세계관을 구축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고흥근 병장은 사업을 하려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역 후 '세계여행'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이 때문. 하지만 앉아서도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독서'라고 덧붙였다. 이미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적인 목표를 이뤘지만 여전히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정립하고자 애쓰는 권용민 병장은, 책을 통해 '채식주의자'와 '미니멀리스트'라는 목표를 만났단다. 작가를 꿈꾸는 임승찬 상병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말했다.

AF: 그렇다면 독서를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공군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고흥근 병장: 교육사 도서관은 제가 일하는 기본군사훈련단과 좀 떨어져 있어, 평소에는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훈련단 대대나 생활관 등에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는 북카페가 있죠. 곳곳에 있는 이러한 미니 도서관이 꽤나 큰 도움이 됩니다.

권용민 병장: 2016년에 신축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교육사 도서관만의 도서 관련 정책이 매우 훌륭합니다. 교육사 도서관은 1년에 10회 정도로 나누어 새로운 책들을 구입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꼴로 신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매달 신규도서가 도서관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신규도서 신청자에게는 그 책을 제일 먼저 읽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요. 이런 세세한 배려와 고민의 흔적이 정말 외닿습니다.

임승찬 상병: 교육사 도서관에는 '독서 마라톤'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처럼, 42,195페이지를 읽으면 성공하는 제도죠. 경품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 데 동기부여가 되고, 이 과정에서 모으게 되는 기록장들은 소중한 자산이자 추억이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독서'를 하는 그들은, 독서를 즐기는 만큼 공군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 또한 활용하고 있었다. 다독왕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독서' 자체에 대한 꿈도 갖고 있었다.

AF: 독서와 관련된 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흥근 병장: 처음 독서를 시작할 때 철학분야에 손을 댔다가 읽히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복무하면서 수많은 책을 섭렵한 만큼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어려운 책들에 도전하고 있고, 삶의 큰 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어려운 책'을 읽어내고 싶습니다.

권용민 병장: 전역하면 시골학교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독서에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독서량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서마라톤 등 공군의 독서 증진 제도를 초등학생들에게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임승찬 상병: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잡지식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모으면 큰 재산이 됩니다. 그것들은 제가 작가가 되어 책을 쓰는 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캐릭터를 고민하고 구축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독서, 독서를 통한 새로운 꿈. 그들에게 독서는 수단이자 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전하는 독서의 중요성을 들어보자.

AF :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말해주세요.

고흥근 병장 : 돌이켜보면 책을 좋아하지 않았던 시절은 내면이 발가벗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 인목을 넓히고 인생이 풍족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용민 병장 : 독서는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람마다 취향과 관심사가 제각각인데, 독서는 나의 취향과 관심의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이죠.

임승찬 상병 : 독서를 통해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선배들이 먼저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를 제가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글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하사 이진우
(8전비)



취재지원
중위 최지형
(8전비)



독서로 찾은 꿈, 독서로 이뤄보려고요~

독서전도사 권민창 중사 인터뷰

책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꿈을 꾸게도 만든다.
그리고 책의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그 순간, 바로 또 다른 꿈이 생긴다는 것.
독서를 통해 인생이 뒤바뀌고, 독서를 향한 꿈을 갖게 된 독서전문가 권민창 중사를 만났다.
권민창 중사는 독서에 관한 비법을 제시한 「권 중사의 독서혁명」이라는 책을 썼으며, 국방TV·국방일보 등에 다수
출연하여 독서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알렸다. 민간인과 부대 내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 멘토링·
독서 코칭 등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열렬히 활동하는 중이다.





독서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26살까지 책을 정말 싫어했어요. 재미없는 사람들이나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했죠. 농구를 하다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어느 날, 평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한 친구가 ‘독서’를 권했습니다. 입원했으니 별 수 있나요? 그렇게 친구가 추천해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고 난 뒤 제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한 권의 책이 생각보다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만약 매일 꾸준한 책을 읽는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크게 변할까?’ 그때부터, 책을 성실히 읽으면서 독후감을 쓰거나 책의 저자와 만남을 갖고, 독서 모임을 만드는 등 독서 활동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쾌남’이라는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권민창 중사는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한 「권 중사의 독서혁명」이라는 책을 썼다. 그만큼 책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그이기에, 첫 말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책을 전혀 읽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책벌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서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니. 그는 독서가 꿈을 찾게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독서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부터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독서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독서로 바뀐 삶,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책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권 중사의 독특한 이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8비 내 독서모임인 ‘책있아웃’(책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과 외부 독서모임인 ‘책으로 말하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독서 및 군(軍)과 관련해 새로 책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단다.

“‘책있아웃’을 통해 시간만 때우며 군생활을 하던 병사들이 꿈을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함께했던 병사들이 제대해서도 저를 찾아와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이야기하죠. 그렇게 책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책으로 말하다’의 경우, 독서모임일 뿐만 아니라 원주의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시작한 활동입니다. 원주 최초의 일반인 강연 버스킹을 시도하는 등 좀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가 스펙이다(가제)’라는 제목으로, 군생활 중 독서와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병사들의 군생활 2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닌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지고 자신의 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그들을 위해 독서 모임과 신간 도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권 중사. 그는 독서와 관련된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밝혔다.

“당직을 설 때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중팔구는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꿈은, 부대 내 독서모임뿐만 아니라 사무실·중대별로도 자발적으로 독서모임을 만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독서 모임은 간부와 병사들 사이의 소통 채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견 간부들은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병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독서를 통해 장병들이 꿈을 찾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라는 권민창 중사. 만약 그 과정이 외롭고 지치더라도, 함께 해줄 ‘책’은 늘 곁에 있을 터. 더 많은 장병들이 독서를 통해 꿈을 찾아가기, 독서의 꿈을 향한 그의 열정은 계속될 것이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글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하사 김재겸
(홍보과)



바람이 분다... 독서의 바람이! 한 달에 책 한 권! 1·1·1 독서운동

무림고수가 바람을 통해 상대방의 기운을 느끼듯,
독서 고수(高手)라면 느끼고 있으리라. 공군에 새로운
독서 열풍이 조금씩 불고 있다는 것을. 이름하여
'1·1·1 독서운동'이다.

이름부터 화끈한 돌직구 작명센스가 돋보이는 이
운동은, 그 내용도 어렵지 않다.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 2016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12권도 안 되는 9.2권이라는데, 이
운동만 착실히 따라서 하면 1년에 12권은 가뿐히 읽을
수 있겠다.

물론 이 운동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군이
함께한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에서는 매월 초 신간
또는 저명한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공지한다. 인문,
사회과학,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혹시 내
입맛에 맞는 추천도서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
기본적으로 본인이 읽고 싶은 도서를 읽되,
추천도서는 참고만 하면 된다.

자, 이제 시작이다. 매 끼니마다 식사로 위장을 달래듯,
내 두뇌에도 맛있는 교양을 제공해주자! **AF**

1·1·1 독서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

생각에
꽃을 피우자



대한민국 공군
REPUBLIC OF KOREA AIRFORCE

격오지 부대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준다고?!

공군 학사장교회의 병영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난해 12월 23일,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196부대의 병영 도서관이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공군 학사장교 예비역 단체인 공군 학사장교회의 '병영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서였다. 그렇다면 학사장교회는 왜 많은 사업 중에 도서관 지원 사업을 택한 걸까? 공군 학사장교회 정보용 사무국장(학사 84기, 예비역 대령)은 이에 대해 '더 많은 장병들이 마음껏 책을 읽으며 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학사장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공군에 음식이나 가전제품 등을 전달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부대마다 가전제품도 잘 구비돼있고, 간식거리 또한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사장교회가 내린 판단은 '쉽고 편하게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자'였다. 즉, 병영도서관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현재 학사장교회와 장교회 내 동호회인 골프 동호회에서 지원에 힘쓰고 있단다.

학사장교회가 병영 도서관 지원사업에 힘쓰는 이유는, 독서야말로 병사들이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의미 없이 허송세월할 수 있는 일과 후 여가시간을 독서로 채워 넣는다면, 진로를 정한 사람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진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독서를 통해 기른 내공이 사회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병영도서관 지원사업의 주요한 이유다.

장병들의 무궁무진한 '독서의 꿈'을 위한 학사장교회의 병영도서관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한다. 만약 본인의 부대에 북카페가 새로이 설치되었다면, 따끈한 차 한 잔과 함께 독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AF**



▲ 제8196부대 병영도서관 개관식



독서는 엉덩이 힘이라고? No No~

일병에서 병장까지 취향저격 계급별 독서 프로그램

‘책을 읽고 싶는데 무슨 책을 읽으면 좋지?’, ‘난 책만 읽으면 졸린데...’

아무리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장병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독서의지가 샘솟기 마련. 그런데 독서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더라도 환경 때문에, 혹은 개인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는 법! 책상에 앉아 엉덩이 무겁게 책만 들여다보는 건 이제 그만~ 월간「공군」이 제안하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에 따라, 본인의 취향에 맞게 독서를 실시해보자.



▲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아직은 시간이 부족한 **이병**을 위해 ‘전자도서관’

아무리 사회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갓’ 이병 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눈동자와 머릿속 레이더가 쉴새없이 돌아가야 하고, 군생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이 시기. 그럼에도 독서를 멈추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추천한다. 바로 ‘전자도서관’이다. 원본 도서의 핵심 내용을 A4 기준 10페이지 내외로 요약하여 제공하는 ‘도서요약’부터, 간편하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E-book 서비스까지. 비단 신병이 아니더라도, 책 읽을 시간이 도저히 부족한 장병에게는 최적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씩 독서의 맛을 느끼는 **일병**을 위해 ‘독서코칭 프로그램’

아직은 ‘일’하는 일‘병’이지만, 이병 때에 비하면 조금은 시간이 생긴 것이 사실. 독서의 맛을 슬슬 익히고 있는 일병들을 위해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주관하며 외부의 독서코칭 전문가가 직접 부대로 찾아오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작전사령부·1전비 등 30개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운영하는 부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 혹시 자신의 부대에서 독서코칭을 실시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병사들 사이의 중추가 된 **상병**을 위해 '독서 동아리'

상병진급캠프까지 마친 당신은 최고참부터 최후임까지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는 '상병'이다. 여러 장병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자. 만약 본인의 부대에 동아리가 없다면? 이럴 때야말로 상병의 멋짐을 보여줄 때! 함께하면 그것이 곧 동아리. 친한 동기·선후임과 함께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말년까지 책을 놓지 않는 **병장**을 위해 '공군 우수독후감 선발대회'

병사 계급의 끝판왕, 드디어 병장 계급을 달았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7개월의 군생활. 다소 길게 느껴지는 이 기간을, 독후감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계발의 기회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1년에 두 차례 개최하는 '공군 우수독후감 선발대회'는 전 장병 및 군무원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도서는 진중문고나 공군 관련 서적이면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입상자에게는 무려 '공군참모총장상'을 시상한다고 하니, 군생활의 마침표를 화려하게 찍고 싶다면 반드시 도전해볼 것!



마지막으로 전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는 월간「공군」의 '책 읽는 공군' 코너도 소개할까 한다. 어떤 코너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당장 56쪽을 펴보라! '책 읽는 공군'의 문은 늘 열려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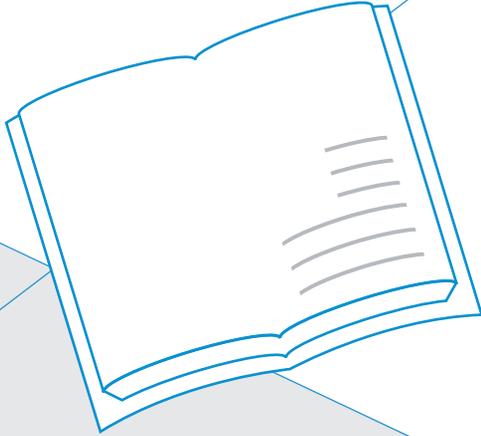


공군 IN

기획특집 1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글·사진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김현정



점심 메뉴 고민 대신
도서 메뉴 고민은 어때요?

따끈따끈~ 올해의 도서

교보문고 추천 Best 5

무더운 날씨로 심신이 지칠 시기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단단히 터를 만들 수 있는 시기다.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은 독서하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고, 책을 안 읽던 사람들도 의식의 흐름이 독서로 옮겨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책을 읽으며 느낄 수 있다. 다소 무거운 책보다 산문집이나 인문교양서부터 선택해서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면 소화할 수 있는 책의 분야가 놀랍게 늘어난다. 늘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헤매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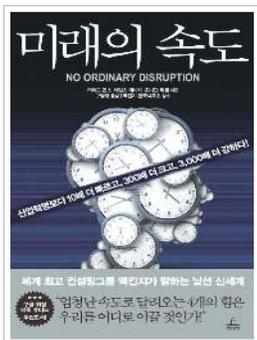
말의 품격 / 이기주 / 황소북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영화 속 명대사처럼, 행동하는 방식과 자세가 사람의 격을 만들고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품격을 느끼게 한다. 바야흐로 말로 흥하기도 하고 말로 망하기도 하는 ‘말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속담처럼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더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언어의 온도>가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독자들에게 사랑 받은 이기주 저자가 경청·공감·반응·뒷말·소음 등 24가지의 주제로 말과 사람과 품격에 관한 생각을 풀어냈다. 격의 수준을 의미하는 품(品)의 글자 구조를 뜯어보면 입 구(口)가 세 개가 모인 글자이다. 저자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쉽게 내뱉었던 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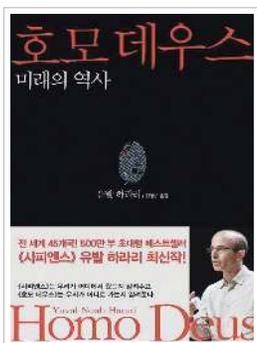
아날로그의 반격 / 데이비드 섉스 / 어크로스

최근 복고 열풍이 불면서 드라미를 통해 정이 넘치던 80년대를 회상할 수 있었고, 아이돌 팬덤 문화의 기초가 된 90년대 음악에 전 연령대가 열광했다. 이런 아날로그 감성의 회귀는 국내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판계 컬러링북, 커팅북, 놀이북 등 독자들이 손으로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책들이 인기를 얻었고, 음원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어가던 음반 시장에서 LP판이 재생산되기도 했다. 디지털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가 범람하고, 경험이 사라져가는 영역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소유하는 기쁨을 주는 아날로그의 힘을 알려주는 책이다. 스마트폰과 모니터 화면만으로는 접할 수 없고, 값을 매기기 힘든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날로그의 타고난 비효율성을 점점 탐하게 됐고, 아날로그의 약점은 새로운 강점이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아날로그의 가치를 알려준다.



미래의 속도 / 리처드 돕스 / 청림출판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개인용 컴퓨터·휴대전화·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 서부터 사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최초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출시된 2007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을 꺼놓을 수 없다. 이런 세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너무나도 빠르고, 인간이 만든 AI기술이 인간을 앞서 나가는 현실이다. 저자들은 산업혁명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변화는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그 영향력은 3,000배 더 강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쌓은 직관으로는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수 없다. 끊임없는 변화와 거대한 기회로 이어지는 미래에 대비할 방법을 알고 싶은 독자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호모 데우스 / 유발 하라리 / 김영사

유발 하라리 교수의 전작 <사피엔스>는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미래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제4차 산업 혁명’이라는 패러다임에 불을 지폈다. 전 세계에 ‘사피엔스 신드롬’을 일으킨 저자는 젊은 석학으로 떠올랐고, 그의 신작을 손꼽아 기다리는 독자들이 많았다. 이 책은 7만 년의 역사를 거쳐 마침내 지구를 정복한 인류가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한다. 과학적인 근거와 철학적 고찰을 기본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아 논리적으로 빈틈을 찾기 어렵다. 역사학, 심리학, 종교, 기술공학, 생명과학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통섭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인류에 대한 역사와 모든 생각을 뒤엎고 현명한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문 교양서로 일독을 권한다.



안녕 돈키호테 / 박웅현 외 / 민음사

짧고 강렬한 문구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고, 또한 가장 트렌디한 직업은 광고 카피라이터가 아닐까 싶다. 늘 새롭고 변화를 추구하는 광고계의 멘토 박웅현 저자와 그의 TBWA O팀이 “창의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돈키호테’에서 찾았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는 학창시절 필독서 목록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하다. 그리고 ‘창의력’은 괴짜의 대명사로 알려진 돈키호테의 모험 속에서 보인 ‘돈키호테력(力)’에서 본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창의력의 토양은 무엇보다도 좋아서 하는 즐거움에서 시작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재성의 발현보다는, 사소한 일상에 대한 집요한 관찰이며 창의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끈기와 용기가 필수다.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돈키호테로부터, 우리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글
김가영
(국방일보 기자)



군대와 책, 책과 군대 국방일보 신간소개담당기자의 책 이야기

국방일보 김가영 기자는 현재 국방일보 디지털뉴스팀 신간소개담당으로서 군 장병들에게 좋은 책을 알리고 독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93년 대구매일신문사에서 취재기자로 첫발을 내딛은 뒤, 지금까지 약 25년 간 독자들에게 좋은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공의 필수조건, 독서!

국방일보에서 4년째 신간소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십 권의 책을 검토하다 보니 출퇴근길 전철에서 책을 읽기도 하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이 저 혼자여서죠. 그럼 대부분 뭘 할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죠. 공군 장병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많았을 겁니다.

예전에 국방일보에서 '책 읽는 병영'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교과서와 만화책 외에 읽은 책이 한 권도 없는 장병이 꽤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軍)은 이처럼 책이 낮은 장병에게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책=성공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유명인사를 인터뷰하면서 성공 비결을 물었는데 99.99%가 '독서'를 꼽더군요. 책은 지식과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실제 해보기 힘든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활자를 읽고 의미를 곱씹는 과정에서 생각의 깊이도 더할 수 있죠. 책의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의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군대 독서'일까요? 군대는 최고의 독서 장소입니다. 슬한 잔 하자며 불러낼 친구도, 수시로 들여다볼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사회의 유혹이 차단된 이곳에서 독서의 재미를 맛보지 못한다면 영영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책? 일단은 쉽고 재미있는 책!

그럼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독서 초보라면 일단 쉬운 책, '느낌'이 좋은 책부터 시작하세요. 느낌은 연인을 만날 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을 펼쳤을 때 전체적인 편집·삽화의 느낌이 좋아야 끝까지 책 읽을 마음이 들 테니까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죠. 책을 다 읽지 않고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머리말을 찾아보세요. 머리말에는 저자가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약돼 있거든요. '책날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날개란 책의 겉표지 일부를 안으로 접은 부분을 말합니다. 앞날개에는 저자 소개가, 뒷날개에는 내용 요약이 있어서 책 내용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끝으로,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지만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소품이 책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네요. 약속이 있다면 꼭 책을 갖고 가세요. 상대가 늦는다면 짜증을 내기보다 책을 펼치세요. 그 혹은 그녀가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가을, 책으로 지성미를 '뽀뽀' 발산하시길 바랍니다. **AF**



스페이스챌린지 2017 본선대회 주관

참모총장은 9월 9일(토)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제39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챌린지 2017' 본선대회를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개회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란다."고 참가 선수들에게 강조했습니다.



📷 대비태세 현장지도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참모총장은 9월 8일(금)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제8610부대를 방문해 작전현장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임무태세 유지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 UFG 연습 참가 한미 장병 격려

참모총장은 8월 31일(목), 작전사령부 독수리회관에서 2017년 UFG 연습 참가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은 “한미 공군의 남다른 우정과 팀워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UFG 연습이었다.”며 “적어떠한 도발을 해오더라도 이번 연습에서 보여준 팀워크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여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F**





October 2017 www.airforce.mil.kr



군수사, 항공우주작전 요구능력서 군수분야 설명회

군수사령부는 9월 1일(금)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항공우주작전 요구능력서 군수분야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전투사, '17 UFG 연습 사후검토회의(AAR)

공중전투사령부는 9월 8일(금) UFG 연습 간 식별된 발전·보완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17 UFG 연습 사후검토회의를 실시하였다.



1전비, 추석맞이 대민의료지원

제1전투비행단은 9월 5일(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덕흥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민의료지원을 실시하였다.



3훈비, 213대대 22만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기념행사

제3훈련비행단은 9월 7일(목) 213대대의 22만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8전비, 병사 사고예방 캠페인

제8전투비행단은 9월 1일(금) 밝고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0전비, 기지인근지역 관계관(민원담당자) 부대초청행사

제10전투비행단은 9월 7일(목) 기지 주변 소음영향지역 관계관(민원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공군과 비행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부대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11전비, 군내 반입물자 폭발물 탐지강화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9월 5일(화) 테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군건을 활용한 군내 반입물자 폭발물 탐지 강화훈련을 실시하였다.



15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9월 1일(금)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16전비, 전입신병 가족초청행사

제16전투비행단은 9월 8일(금) 전입신병 가족들이 공군과 병영생활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입신병 부모 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17전비, 부대창설 제39주년 체육대회

제17전투비행단은 9월 1일(금) 장병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부대창설 제39주년 기념식 및 비행단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19전비, 응급처치 교육

제19전투비행단은 9월 12일(화) 비행단 내 응급처치 교관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20전비, 軍 진로직업 체험교육

제20전투비행단은 9월 5일(화)~9월 6일(수)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분야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軍 진로 직업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2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
여기서 시작합니다

글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하사 김재경



2017 스페이스 챌린지 본선대회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
여기서 시작합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었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남긴 말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한 발자국이, 때로는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2017 스페이스 챌린지의 풍경도 어찌먼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글라이더를 날리고 물로켓을 발사하는 ‘모형항공기 대회’로 기억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늘과 우주를 꿈꾼 최초의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깊게 느껴질 정도로 푸르고 맑았던 가을 하늘. 형형색색의 모형비행기와 함께 아이들과 부모님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이었습시다. 그들 중에는 분명 하늘을 향한 꿈을 키우게 된 아이도 있겠죠! 그러니 달의 발자국을 처음 남겼던 우주비행사의 말은 이렇게 바뀌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한 아이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하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3

압도적인 힘으로!
한미공군 무력시위

글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상사 편보현
상사 전용태
(공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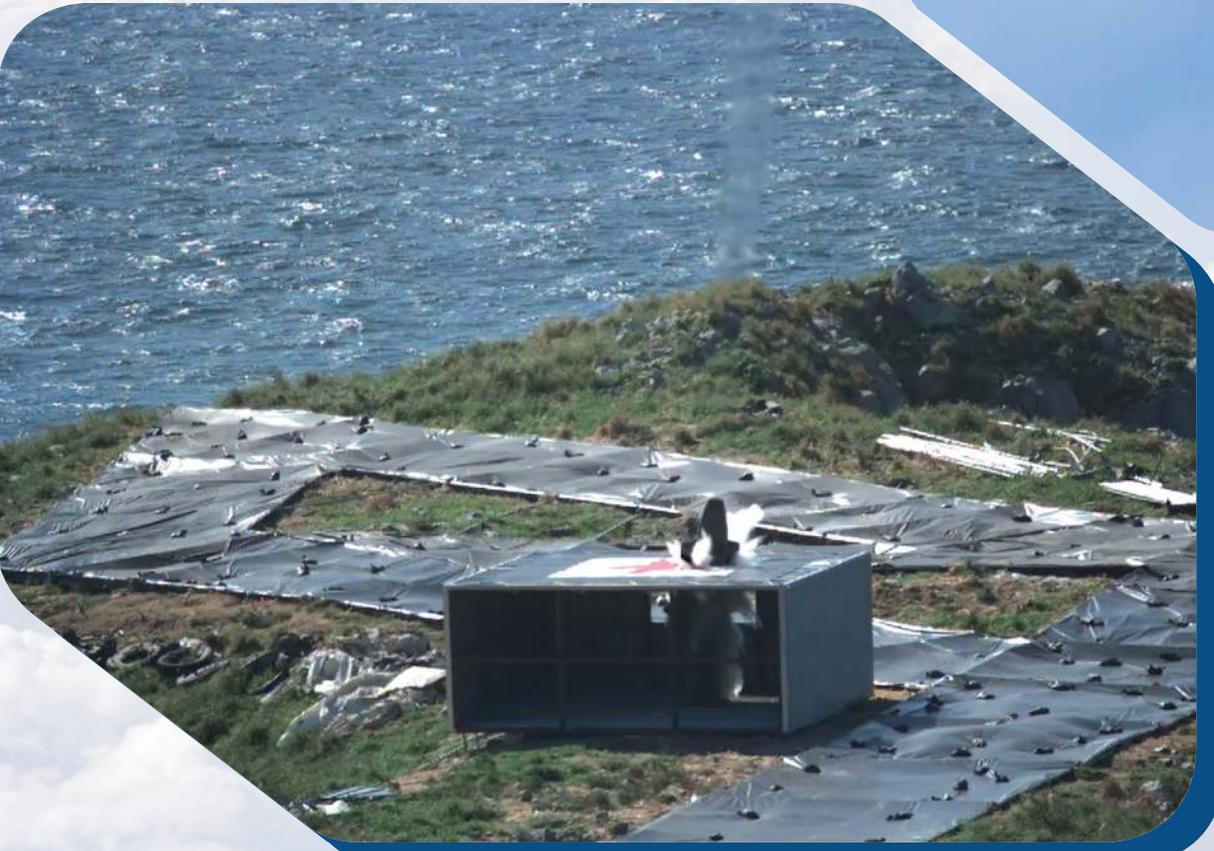


압도적인 힘으로! 한미공군 무력시위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6차 핵실험. 「손자병법」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적이 장차 쳐들어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지 말고, 적이 감히 공격할 수 없도록 대비하라.' 적의 도발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압도적인 힘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등장할 만큼, 우리 공군은 북핵 대응 무력시위에서 '강력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 F-15K의 MK-84 실무장 폭격훈련



◀ 목표물에 명중하는 타우러스



▲ F-15K의 SLAM-ER 발사 장면

먼저 지난 8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공군의 F-15K 4대가 MK-84 폭탄의 실무장 폭격훈련을 실시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8월 31일, 한미 공군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연합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작전에는 美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투입되었고, 美공군의 B-1B 폭격기 2대,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가 편대를 이루어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필승사격장에서 MK-84, MK-82, GBU-32 등을 가상의 목표물에 투하하는 공대지(空對地) 공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B-1B 폭격기의 장거리 폭격능력과 F-35B 전투기의 은밀침투 및 정밀공격 능력, F-15K의 강력한 타격 능력을 선보일 수 있었다.



▲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한 F-15K



▲ 연합 항공차단작전에 참여한 F-35B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다음 날인 9월 4일, 우리 공군의 F-15K는 AGM-84H(슬램-ER) 미사일을 장착하고 한반도 영공을 날았다. 슬램-ER은 사거리가 270km에 이르며 목표물을 3m 이내 오차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미사일로, 적 도발 시 즉각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9월 12일에는 슬램-ER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과 500km의 사거리를 가진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도발과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 결의를 보여주었다.

아무리 하늘이 자비롭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이 지키는 하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길게 말해 무엇하리, 존재만으로도 위용과 위엄을 뽐내는 한미 공군의 전력을 사진들 통해 살펴보자. **AF**



공군 IN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도서관

글·사진
이휘리(공감기자)



가을 독서나들이 '도서관'



조금 쌀쌀해진 바람과 낙엽이 색을 바래는 가을이 되면 왠지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그럴 때 가장 쉽게 떠날 수 있는 곳, 바로 하얀 종이에 검정색으로 써내려가진 문장 속의 멋진 장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의 여행이다. 내가 고른 책 속 수백만 곳의 여행지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씨와 독서가 미덕이 되는 가을의 분위기. 가을의 푸른 하늘 아래서 어디든 떠날 수 있게, 상상 속의 여행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곳을 소개한다.

책의, 책에 의한, 책을 위한 도시 '파주 출판도시'

자유로를 따라 문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어딘가 예쁘고 세련되게 생긴 건물들을 볼 수 있다. 바로 출판사와 책과 관련된 공간들이 모여 있는 출판문화공동체, 파주출판도시이다.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 세워진 건물들은 도시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처럼 만들고자 문화도시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졌다. 실제 안내지도에는 걷기 산책코스가 잘 나와 있고 자전거도 비치되어 있으니

다리를 건너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평일에 방문한다면 실제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출판사나 독립 출판사들의 생동감 있는 바쁜 하루를 볼 수 있고, 주말에 방문한다면 한적한 마을의 동네 북카페에서 온종일 여유를 즐기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지혜의 숲

연락처 : 031-955-0082

특 징 : 개인 또는 출판사에서 기증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 공간. 전시와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

운영시간 : 1관)10:00~17:00 2관)10:00~20:00
3관)24시간

문발리 헌책방골목

연락처 : 031-955-7440

특 징 : 옛 책방 골목 같은 공간의 북카페. 중고책을 판매하며 비정기적인 음악공연 있음.

운영시간 : 10:00~19:00 명절휴무





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서울 시내 한가운데 한옥으로 지어진 도서관이 있다. 종로구에 위치한 이곳은 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으로 인왕산 자락의 멋진 풍경 속에서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까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가 그려진다. 특히 단풍이 들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선비 놀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립 도서관인 만큼 책 대출도 가능하며 온돌로 된 독서공간에선 누구나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인문학 콘서트와 저자와의 만남 등의 이벤트가 있고 문인들을 위한 집필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변에 운동주문학관도 있으니 책과 함께 가을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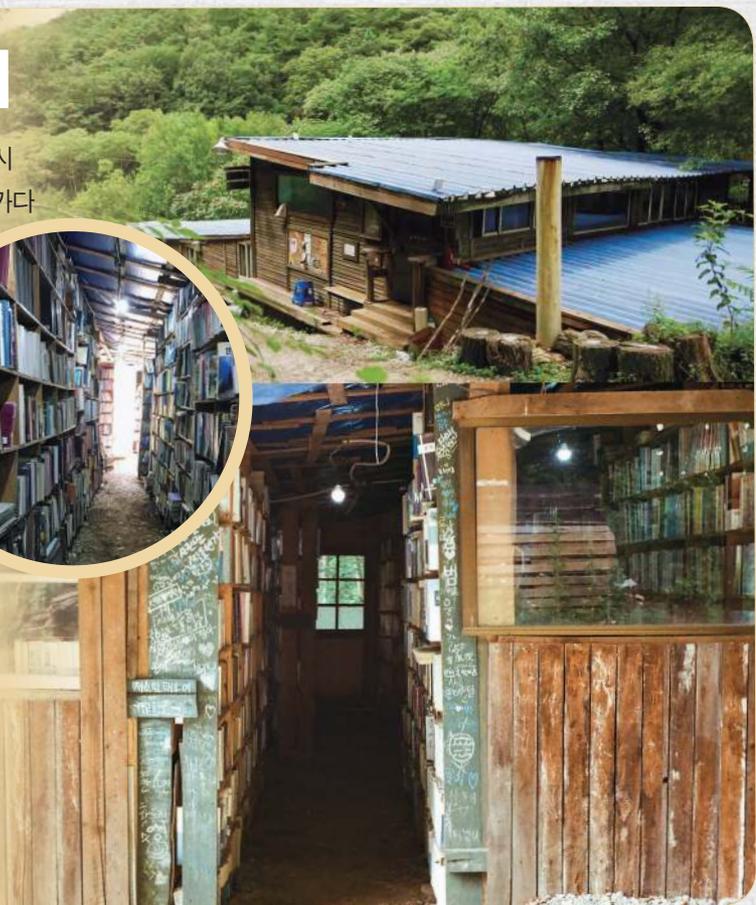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40

연락처 : 070-4680-4032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9:00(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및 기타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날 휴무)

가을의 감성을 오롯이 느끼는 시골책방 ‘새한서점’

영화 ‘내부자들’을 봤다면 아마 조승우와 이병헌이 잠시 숨을 고르던 시골집을 기억할 것이다. 시골길을 들어가다 비포장의 굽은 길을 한참 더 가다보면 여기에 정말 서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조금을 더 가다보면 시골 할아버지가 나와 반겨줄 것만 같은 새한서점을 만날 수 있다. 1976년 고려대 앞에서 문을 연 뒤 2002년 현재의 단양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온라인판매도 함께하고 있다. 자연 속의 서점은 어지러운 듯하면서도 잘 정리되어 있고 좁은 책장 골목 사이사이에는 누군가의 역사가 담긴 헌책이 무려 12만 권 이상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가을 나무들이 완연한 자연 속의 서점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추억도 함께 남길 수 있을 것이다. **AF**



주 소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현곡본길 46-106 새한서점

연락처 : 010-9019-8443

운영시간 : 09:00~19:00 연중무휴



공군 IN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글·사진
양낙규
(아시아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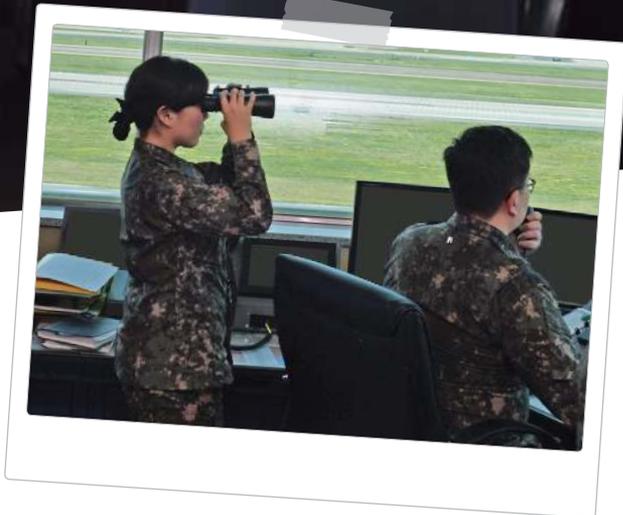
양낙규 기자의 공군 취재기 8편

전투조종사들을 지키는 하늘의 등대

도로에 자동차를 인도해주는 신호등이 있다면 바다에는 배를 인도해주는 등대가 있다. 하늘도 마찬가지다. 전투임무를 수행 중인 전투기를 통제하는 곳이 있다. 바로 하늘의 등대로 불리는 '관제탑'이다.

관제탑의 중요성은 여러 사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1977년 3월 27일 스페인 테네리페에 위치한 로스 로데오 공항에서는 사상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했다. 착륙하던 미국 팬암(panam)사 항공기와 이륙하던 네덜란드 KLM항공사 보잉 747기가 서로 부딪혀 총 583명이 사망한 것이다. 사고원인은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하는 관제탑의 단순한 실수였다. 항공 전문가들은 관제탑의 판단에 따라 민항기 사고는 물론 군 작전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며 관제사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14년 5월 관제사 임무를 체험하기 위해 대구비행장을 찾았다.

대구비행장에서는 공군 최신예전투기는 물론 하루 평균 22편의 국내외 민항기가 이착륙한다. 항공기의 이착륙이 많은 만큼,



비행장은 활주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규모를 자랑했다. 부대 입구부터 관제탑까지 가는 데만 차로 10분을 달려야 했다. 관제탑이 위치한 활주로에 들어서자 '기동구역'이라는 빨간색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다. 안내장교는 "부대장병들조차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라면서 "일반인이 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관제탑은 8층 높이로 마치 바다 한가운데 등대처럼 생겼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8층 맨 위층에 도착하니 10평 남짓한 공간이 나왔다. 관제실이었다. 시방이 유리로 둘러싸여 공항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전방에는 팔공산의 풍경도 펼쳐졌다.

기자가 “전망이 좋은 곳에서 근무해 좋지 않으나”고 말을 꺼내는 순간 활주로를 살피던 관제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민항기 1대가 착륙을 위해 동쪽 상공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활주로에 차량 한 대가 활주로를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제사는 급히 통제실에 연락해 인도(Follow me)차량을 출동시켰다. 금세 노란색 차량이 활주로 한쪽에서 쏜살같이 달려나와 차량을 활주로 한쪽으로 인도했다. 이어 민항기는 한쪽 활주로에서 바퀴에 연기를 뿜으며 착륙했다. 한 관제사는 “관제탑은 이륙 1분, 착륙 2분을 지칭하는 ‘마의 3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륙할 때보다 활주로와 충돌하는 착륙 때 사고발생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관제사들은 수시로 활주로의 마찰력을 측정해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비와 눈이 오면 활주로에 마찰력이 줄어 이착륙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30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서쪽 상공에서 민항기 한 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은 모두 바람에 따라 결정된다. 맞바람을 맞아야 착륙거리가 더 짧아진다.

관제사들은 새털구름, 양털구름 등 27가지 구름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 기상을 관측한다. “오늘 날씨는 좋을 것 같아 다행이지만 비행기의 가장 무서운 적 중의 하나인 새떼도 조심해야 한다.”고 한 관제사가 말했다. 새떼가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충돌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제탑 안에는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나열된 모니터 4대가 눈에 띄었다. 이 중 기능을 눈치 챌 수 있는 모니터는 레이더뿐이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레이더는 모두 6개의 원으로 그려져 있었다. 원 하나마다 거리는 40km, 모니터는 반경 240km 상공에 떠있는 항공기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레이더에는 4자리 고유식별번호를 꼬리표처럼 달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관제사는 “고유식별번호 하나만으로 민항기와 군용기, 적기와 아기를 모두 구분할 수 있다.”면서 “대구비행장 관제권인 반경 8km, 고도 1.2km 외에 적기가 출현하면 방공관제사(MCRC)에서 통보해준다.”고 설명했다.

동쪽 활주로 끝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보였다. 우리 공군의 F-15K 4대가 이륙을 위해 일렬로 서자 조정석 유리에 햇빛이 반사된 것이다. F-15K 조종사는 관제사와 통신을 하더니 활주로 끝에서 달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가 100m 레인을 달려오는 듯했다.

F-15K는 관제탑 앞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솟아올랐다. 민항기에 비해 이륙거리가 절반에 불과했다. 굉음이 관제탑의 유리창문을 뒤흔들었다. 대구비행장에서 이륙한 F-15K는 작전 반경만 1800km에 달해 울릉도는 물론 최남단 마라도, 서해 북방한계선(NLL)까지 작전을 수행한다.

제이무리 최신예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착륙할 때면 어김없이 관제사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밤이 어두워지자 불을 밝힌 관제탑은 그야말로 등대처럼 보였다. 대구비행장 관제탑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등대였다. **AF**





공군 IN
조인, 조인!

글
이도아
(공감기자)

사진
중사 조수민
(홍보과)



취재지원
중위 이준건
(홍보과)

부적, 공군인 자격인 총천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에 대해 다 모여라!

조인, 조인!

鳥人

제17화

소설을 통해 '서로에게 별이
되어줄 수 있는 거리'를 꿈꾸는,

SF 작가 '배명훈'(학사 106기)

프로로그

‘어떤 사람일까?’ 그의 작품 세계에는 언제나 기상천외한 설정과 재미가 함께했기에, 인터뷰 장소에 와 앉아 있는 동안 그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때마침 문이 열렸고, 그가 들어왔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 정말 차원의 문을 건너 날아오기라도 한 걸까?’(『청혼』, 2013, 30쪽) 그를 보자마자, 내 머릿속엔 그가 쓴 소설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작품 세계를 놓고 추측했을 때는 분명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의 소유자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수더분한 외모에 평범한 옆집 오빠 같은 인상을 한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왔다.



서울대 외교
정치학과 97학번
인 그는, 2001년 23살

의 나이에 공군학사 106기로 공군에 입대했다. 입대 계기는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공군 출신 선배들이 많았고, 공군이 지향하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공군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는 그가 최근에 쓴 소설 『외합절 휴가』에도 등장한다. ‘일본은 공군 총독이 따로 없었지만 만약 공군 총독이 왔다면 아마 거의 민주주의를 했겠지. 공군은 어디나 다 공군이니까.’(『외합절 휴가』, 2017, 138쪽)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드셨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F 작가 배명훈입니다.”

배명훈 작가가 공군에 입대하고 배치된 곳은 학생 조종사들의 비행입문과정을 담당하는 공군사관학교 212비행교육대대, 맡았던 직책은 행정계장이었다. 직책의 명칭처럼, 그의 주요 임무는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도맡아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학생조종사들의 지원업무 및 부대의 행정을 담당했으며, 숙소 관리를 비롯하여 총기·환경 미화, 당직 순찰 등 다양한 업무까지 담당했다. 해당 보직이 오랜 기간 공석이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상당했기에 중간급 간부로서 제대로 역할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선임부사관이었던 조영근 중사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어려움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공군에서의 경험은 작가적 역량을 키우기에 유용했다. 특히 그는 공군에서 겪은 것들을 소설에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신의 궤도」, 「청혼」 등의 작품이 그렇다. 공군의 특성상 특이한 경험을 할 기회들이 많았기에, 그것들을 소설의 재료로 다듬어 작품에 부단히 녹여내는 것이었다. 공군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활주로가 있는 곳에서의 생활 등은 아직도 생생할 만큼 꽤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어떤 식으로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곳이었기에, 그곳에서의 3년은 작가로서 그의 시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제대 그 후, 10여 년간 걸어온 SF 작가로서의 삶은 어떤지 묻자 그는 답해왔다.

“글쓰길 워낙 좋아해서 집필에 어려움은 없었고요. 다만 SF쪽은 비평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 작품에 대한 비평은 더 뜸한 편인데 그게 이따금씩 고층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작가 행사에 초청되면, 다른 작가들은 비평가들이 작품 해설을 하는데, 저는 제가 제 글을 직접 비평하고 소개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해도 돼요. 제가 기존 SF장르에 대한 모방과 습작 없이 소설을 써온 터라, 실험적 부분들이 많아서 비평가들이 작품 분석에 애를 먹거든요. 이를테면 기존 비평 방식은 인물 중심에서 이뤄지는데 제 소설은 인물뿐만 아니라 세계 또한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깐 분석의 틀 자체에 맞지 않는 거죠.(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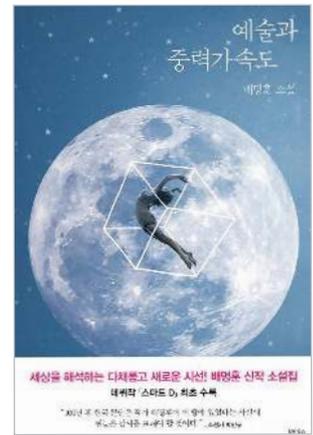
그가 SF 작가로서 꿈꾸는 내일은, 지금처럼 꾸준히 SF 장르 영역을 개척해왔던 기세를 이어 ‘세계 진출’을 하는 것이다. 아직은 해외 출판에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세계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럼에도 모름지기 책이란 널리 읽혔을 때에 제 진가를 발휘하는 법. 그는 기회가 된다면 「첫 숨」, 「예술과 중력가속도」 이 두 작품을 제일 먼저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단다.



“제가 제 책을 추천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만일 제 책을 처음 접하시려는 독자 분들이 계시다면 장편소설 「첫 숨」, 단편모음집 「예술과 중력가속도」를 추천 드리고 싶어요. 특히 「예술과 중력가속도」에는 제 데뷔작이었던 ‘스마트’라는 소설이 포함돼 있죠. 제 작품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좋은 책들입니다. 이 두 책이 구미에 맞으신다면, 남은 책들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스커피 얼음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즐겁게 한 낮의 인터뷰에 응해준 배명훈 작가. 월간 「공군」의 독자들에게 전할 말을 요청하자 그는 유쾌한 얼굴로 “여러분, 필승하세요!”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어 ‘공군에서 문학을 꿈꾸는 징병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시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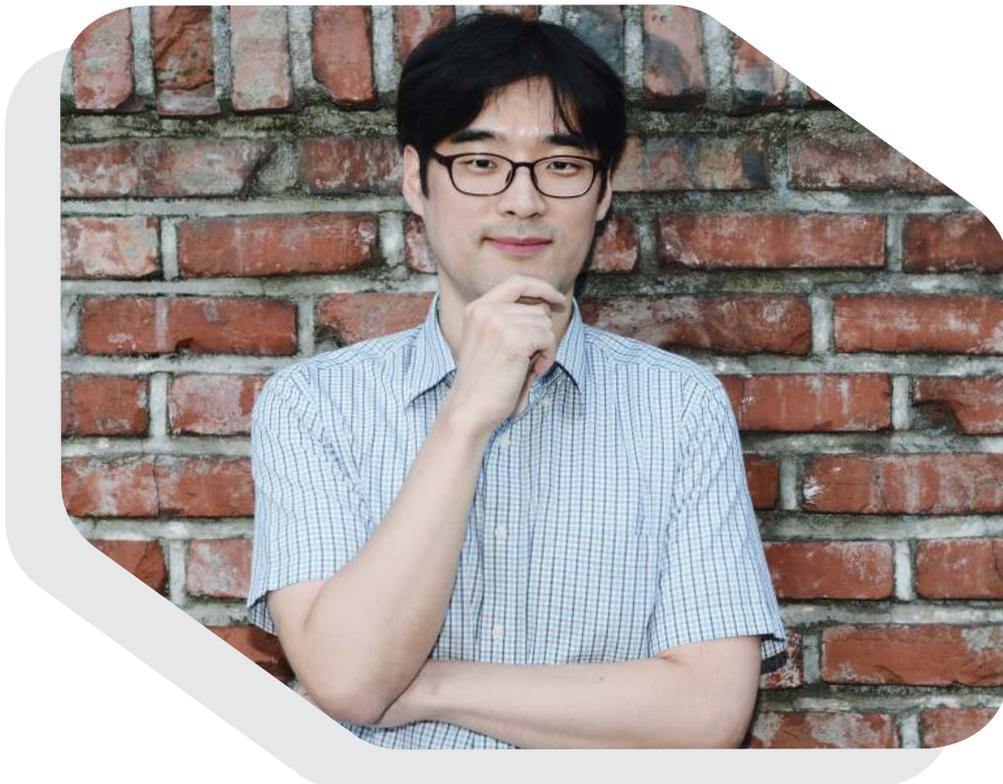
“2000년대 초반의 저처럼, 공문서와 사유서에 온갖 공을 들여 창작하고 계실 공군의 젊은 문학 지망생 여러분! 등단보다는 좋은 작가를 목표로 삼고 노력하세요. 글을 쓰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등단이 아닌, ‘좋은 글’을 쓰는 것이니까요. 좋은 글을 쓰고자 발버둥쳤던 그 노력들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파이팅!” **AF**



▲ 「첫 숨」과 「예술과 중력가속도」



▲ '2016 서울디지털포럼특집' 방송 중





공군 IN
신고합니다!

기획
하사 김재겸
(홍보과)

사진
상사 안동희
(3훈비 정훈실)



김우준
병 757기
운항관리
2015. 10. 19.
(입대곡: 태연 - 1)

조류/FOD처리병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흔히 BAT반으로 알려져 있는 조류/FOD처리병의 주된 업무는 항공기들의 비행에 위협이 되는 조류를 감시·경계하고 퇴치하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활주로와 유도로 상의 F.O.(Foreign Object, 이물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감과 팀워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의 업무는 항공기 엔진이나 기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이나 부주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야 합니다. 또, 업무 특성상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병사들 사이의 호흡이 근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팀워크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에 했던 사천 엑스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블랙이글스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항공기들이 사천기지로 들어왔고,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새들이 다수 출몰했던 상황이었기에, 행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한 채 근무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행사는 무사히 끝났고, 행사 담당자 분이 맛있는 음료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후임자에게 한마디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그동안 잘 따라와줘서 고맙게 생각해. 부서 특성상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야. 스쿠터를 타고 총기를 사용하는 보직이니, 꼭 안전에 신경써서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행복한 BAT반이 되길 바래!



신.고.함.니.라

최재영

병 999기

은함관제

2017. 6. 19.

(입대곡: 미니북 - 서로 말할 것 같으면)

조류/FOD처리병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직접 활주로에 들어가 조류 퇴치 및 FOD작업을 하며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글라스를 쓴 채 스쿠터를 타고 새를 쫓는 일은 부대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조류/FOD처리병으로서 업무 숙달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미숙한 부분도 많고 실수도 잦습니다. 무전기 사용법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활주로·게이트 위치를 헛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든든한 선임들이 하루하루 잘 이끌어주고 챙겨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차근차근 업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목표는?

자기계발, 선후임과의 친밀한 관계 만들기, 운동, 사회성 함양 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정신력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 기본군사훈련 당시 소대장님께 배웠던 마음가짐으로, 2년의 군 생활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전역자에게 한마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옆에서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우준 병장님이 닦아놓으신 BAT의 길, 이제 제가 이어 받아 후임들에게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AF**



반복되는 속쓰림? 기능성 위장장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다. 맛있는 음식들로 풍족한 계절에 우리 입은 즐겁지만, 뱃속은 반대의 상황일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더부룩하며 체한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한 위장장애가 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무기력증이나 신경증을 동반하고, 만성 피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 살펴보자.

기능성 위장장애란?

쉽게 말해 공복에 신물이 넘어오거나 속 쓰림, 소화불량, 더부룩한 느낌부터 어지럽거나 구토감이 느껴지는 멀미까지, 일상생활에서 위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질병으로 판명나지는 않았기에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능성 위장장애가 계속되면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왜 생기는 걸까?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자극적인 식습관, 위장관의 운동장애와 염증, ‘공공의 적’인 스트레스가 예상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불규칙한 식생활과 자극적인 음식 섭취가 더해져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성 위장 장애가 오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할까?

근본적인 치료는 먼저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1. 맵고 짠 음식을 평소 즐겼다면 되도록 삼가고, 천천히 소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 음식 섭취 시, 20번 이상 입 안에서 충분히 씹어서 삼키도록 한다.
3. 만약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4. 기름기가 많은 음식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5. 커피, 콜라, 사이다 등 청량음료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음식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6. 특히 니코틴은 알칼리성 체장액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위의 혈류량을 감소시킨다. 위장장애 증상이 있다면 꼭 금연하도록 한다.
7. 가을을 맞아 등산이나 걷기 운동을 취미로 삼는다면, 위장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8. 모닝커피나 식후 커피를 대신해 생강차나 계피차, 대추차 등으로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차를 마시자. 소화기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이 되는 운동법은?

과격하지 않은 강도의 복근강화운동과 수영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에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우니 피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운동을 시작하자. 또한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도록 하고, 위장연동 운동을 돕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자주 하자. **AF**



제20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The 20th International Aerospace Symposium



주제 TITLE

급변하는 안보환경,
항공우주력에서 길을 찾다

Aerospace Power : Safeguarding a
Vulnerabl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일시 DATE

2017년 10월 16일(월),
09:00~16:20

October 16th (Mon.), 2017
09:00~16:20

장소 LOCATION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울 강남구)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Hotel(Gangnam-gu, Seoul)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Air-power Report |

첫 공대공 미사일이 되자!

미 공군의 F-15C 3기 편대가 일제히 스페로우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2차 대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1947년, 미 해군 병기국(Bureau of Ordnance : BuOrd : 1862~1959)은 핫샷 프로젝트(Project Hotshot)라는 암호명으로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해군 병기국은 심사 끝에 참신한 기술력을 보이던 벨(Bell Aircraft)사(社),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던 더글라스(Douglas Aircraft Company)사, 비행정교로 잘 알려진 글렌 마틴(Glenn L. Martin Company)사가 신무기 개발에 참여할 것을 승인했고, 그때부터 세 업체의 경쟁은 시작되었다.

마틴 측이 제안한 미사일은 AAM-N-4 오리올(찌르레기)이었다. 오리올은 더글라스가 개발하던 AAM-N-2 스페로우(Sparrow I)의 간단한 유도 방식에 비하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추적이 확실한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것은 미사일의 노즈 안에 아주 작은 수신 안테나를 집어넣어 발사한 기체에서 조사한 전파를 쫓아 자동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해상의 번덕스런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도거리도 길어서, 훗날 많은 공대공 미사일들이 채용하는 전도유망한 방법이었다. 같은 시기, 벨사에서 개발하고 있던 AAM-N-5 미티어(Meteor) 미사일은 고체 로켓 부스터에 액체 연료 로켓을 연결시켜 길이가 4.25m나 되었지만 유도 시스템만큼은 마틴 기술진이 고안한 것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다.



▲ 차례로 오리올(마틴), 스페로우 I(더글라스), 미티어 미사일(벨)의 시제품

성공의 관건은 작고 가벼운 탄체에 전자장치를 넣는 것이었다. 함상 전투기는 탑재량이 적어 탄체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복잡하고 정교하면서 신뢰성도 보장되는 전자장치를 넣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탄체는 발함과 착함 시 강한 충격에 시달리는 함재기에 실릴 예정이었고, 절대 고장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도 붙어있었다. 그 무렵 함상 전투기 무장 탑재량의 한계는 2발이었기에, 1발만 고장 나도 그 기체는 전투력의 절반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현재 남아있는 오리올 미사일

마틴 기술진들을 제일 괴롭힌 것은 전파를 수신하고 그것을 해석해 목표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계산한 다음,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목표로 향하게끔 유지할 전자 장비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당시는 IC 회로는 고사하고 트랜지스터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였다.

마틴 사의 개발진들은 오리올 미사일이 비좁은 항공모함 갑판과 승강기로 운반되는 점을 고려해, 탄체 중앙에 붙은 안정날개 4장과 후미에 달린 조종날개 4장을 모두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고안해낸 오리올 미사일은 세 후보 중에서도 가장 심플하고 매끈한 형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나중에는 더글라스 개발진들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 쓰이는 스페로우 미사일의 원형이 되었다. 완전히 발사 준비를 갖춘 오리올 실탄의 무게는 1,500파운드(680kg)에 비행 속도는 마하 2.5였다.

당시 막 발명된 트랜지스터는 전자공학에 혁명을 일으켰고, 미사일의 유도장치나 레이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948년, AAM-N-4 오리올 미사일은 해군과의 계약 지침에 따라 유도 시스템을 전부 트랜지스터 회로로 바꾸는 개량 작업을 선행해야만 했고, 그 결과 초기형의 완성이 몇 년이나 늦춰진다. 그동안 더글라스 사는 먼저 만들었던 스페로우 I을 버리고 오리올 미사일의 장점을 받아들여 완전히 달라진 스페로우 II 미사일의 시제품을 제안한다. 스페로우는 소형 경량이라는 이점 때문에 처음부터 유리한 후보였는데, 길이는 오리올과 비슷했지만 결정적으로 무게가 1/3 수준에 불과해 대형 전투기라면 4발까지도 싣는 것이 가능했다.



▲ 스페로우 I 미사일

결국, 납기일에 맞추지 못한 것을 비롯해 몇 가지 성능 부족을 지적받고 심사에서 떨어진 오리올 미사일은 미 해군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 되는 영예를 차지하는 대신, 차세대 미사일 개발을 위해 테스트베드 용도로 쓰인다. 1950년에 오리올 미사일의 제식 명칭은 RTV-N-16으로 바뀌고 해군의 포인트 무구 시험센터(Point Mugu Naval Air Warfare Center)에서 해군 기술진들의 주도하에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시험에서 오리올 미사일, 아니 RTV-N-16 드론은 A-26 공격기에 장착되어 1953년까지 56회의 시험 발사를 하며 각종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된다. 그때 사용하고 남은 탄체 중 한 발은 지금도 포인트 무구 미사일 공원(Point Mugu Missile Park)에 전시되어 있다.

이렇듯 마틴 오리올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필수적인 기술적 토대를 닦았으나 결국 실용 무기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테스트에만 쓰이는데 그쳤다. 물론 마틴 사는 핫샷 프로젝트 이후에도 해군의 굵직한 계약들을 따냈으나, 적어도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남 좋은 일만 해준 꼴이 되어 버린 셈이다. **AF**



공군 재무관리본부

나의 신용은 내가 지킨다!

신용관리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나는 신용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는 인간관계든 금융생활이든, 타인에 의해 나의 신용을 평가받습니다. 신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이 미래시점에 상환 또는 지불할 것이라는 믿음’인데요. 이번에는 다양한 생활 속 신용 중에서도 경제활동의 신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용도를 관리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신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자금계획을 세우거나 대출시 우대 조건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거래 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경제를 투명하게 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신용관리 방법을 배워봅시다!

신용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신용등급이 1~2등급만 높아져도 다양한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고 대출이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등급별로 약 1~2% 포인트 정도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므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은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억을 대출받을 경우, 1등급과 10등급의 연이자 차이가 약 2,500만 원 정도라는 걸 생각해보면 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채무불이행자로 가는 길은 막아야 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제때 상환한다면 문제없겠지만, 신용불량자로 남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①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습관 :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다 연체가 되는 경우 연쇄적으로 연체될 위험이 크므로 꼭 필요한 카드가 아니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현금을 끌어 쓰는 카드깡 역시 신용위기로 향하기 쉽습니다. 주머니 속의 빌린 현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세금,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연체 : 소액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습관적인 연체는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무심코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전에 신용등급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 없는 금융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불법사채 이용 :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금리의 사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관심 갖기 : 신용도를 관리하는 첫걸음은 개인정보유출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금융거래에 악용되면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신용도도 떨어지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용등급별 신용등급 관리요령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받는 **1·2등급**일 경우 한도 내 신용거래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존 거래수준 이상의 금융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신용도를 관리하기 좋습니다. 무리한 신용거래로 한도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3·4등급은 연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소득대비 무리한 카드사용을 줄이는 것이 등급상승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신용거래를 시작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주로 **5·6등급**일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이력이 없도록 하고 계획적인 신용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8등급은 은행권에서의 신규대출은 어려운 등급으로 대출규모와 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갖고 있다면, 신용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신용도를 높이는데 유리하며,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9·10등급은 제2금융권에서의 신용대출도 어렵게 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소비적인 지출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기존 대출과 연체를 줄여가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연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먼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지출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지출 규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을 세워보세요. 이사 등으로 인한 청구지 주소변경관리와 자동이체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연체예방방법입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변경된 주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점검과 소득 확보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용등급과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관리 사이트에서 무료로 등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 사이트를 통하시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신용등급 변동사항뿐 아니라 카드사용내역이나 대출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겠죠. 일정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신용관리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장롱 속에 많은 돈을 모아두고 있다고 신용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신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랜 기간 꾸준히, 성실하게 쌓아 온 이용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례 은행 1~2곳을 정해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하고 꼼꼼하게 나의 금융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AF**





글
이미도
(외화번역가, 작가
<독보적 영어 책>
등 지음)



Hollywood English

태양의 제국



때는 1941년 7월 말. 태평양에 새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욕을 품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이용해 인도차이나반도에 진주하고, 미국은 석유의 교류를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내리는 등 경제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그러자 12월 7일, 일본은 보복으로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말이죠. J. G. 발라드의 반자전적 소설을 각색해 스티븐 스피버그가 만든 <태양의 제국(Empire of the Sun)>은 진주만 공습 이후 상하이가 무대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4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수천 명의 외국인은 국제 거주자에 대한 외교조약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들 외국인 무리의 중심에 '짐(제이미)'의 가족이 있습니다. 일본 군함이 포격을 개시하고, 일본 육군이 상하이 도심에 진군하자 피난하던 소년 짐은 가족과 생이별하게 됩니다. 'This house is now the property of His Imperial Majesty The Japanese Emperor.' 소년이 가족과 살았던 대저택엔 그런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저택도 이제 일본 천황의 소유라는 뜻이지요.

“팔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이지(Buying and selling. Life).”

장물아버인 미국인 베이시가 소년을 중국인에게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약골이어서 다행히 팔리진 않지만 대신 소년은 전쟁포로(POW, Prisoners of War) 수용소에 갇힙니다. '소년의 성장기 삶을 다룬 시대극 전쟁영화(epic coming-of-age war film)'는 그렇게 영화의 중심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적자생존 법칙’은 영어로 ‘the law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이지요.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내용의 학설인데요. 짐은 일본군과 마주할 때마다 양손을 쳐들고 “항복(! surrender!)”을 외치며 먹을 걸 구걸합니다. 매일 포로가 죽어나가는 수용소 안에서 소년은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물을 교환 중개도 합니다. 담배, 껌, 구두약, 배추, 비누 등이 그를 통해 몰래몰래 배달됩니다.

때는 1945년. 수초우 수용소(interment camp)에 이송된 포로들은 활주로 공사를 위한 강제노역에 동원됩니다. 그곳에서 친해진 의사 롤린스가 소년에게는 아버지상(father figure)입니다. 의사는 소년에게 생존을 위한 투지를 북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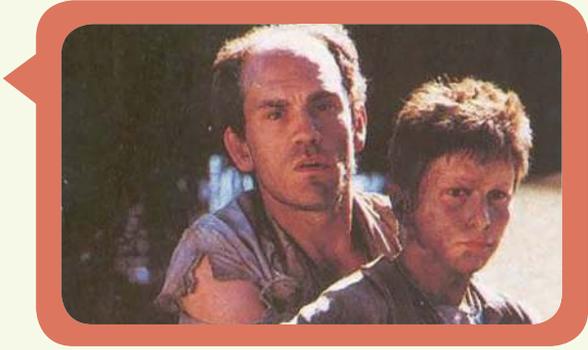
“죽지 않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it’s how we’ll win, refusing to die).”

한편 베이스는 세를 불러 수용소 탈출 작전을 짭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제이미가 애원합니다. “저를 데려가요(Take me).” 그러자 베이스가 묻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한 개만 대봐(Give me one good reason I should).” 소년의 대답은 간절합니다. “제가 친구잖아요(Because I’m your friend).” 소년은 베이스가 일본군에게 살해될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이기에, ‘좋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머잖아 소년은 배신의 쓰라림을 경험하죠. 소년은 영특해서 뭐든 ‘빨리 배우는 아이(quick learner)’입니다. 성인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고의 스승은 인생 대학이에요(The best teacher is the university of life).”



꿀꿀이죽처럼 형편없고 더러우며 죽은 벌레가 득실대는 음식이 나와도 소년은 곳곳이 먹어치웁니다. 벌레는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어른들을 가르치면서.



짐이 부모 얼굴을 잊어갈 무렵, 희망의 서막이 열리는 걸까요. ‘B-29 폭격기’가 나타나 활주로를 공격합니다. 일본군 수용소장은 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양호실을 부수고 의사를 무참히 폭행합니다. 그때도 제이미가 나서서 일본어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더 큰 화를 막은 소년은 포로들의 은인으로 거듭납니다.



얼마 후 ‘하늘의 캐딜락’이라 불리는 ‘P-51 무스탕(Mustang)’이 등장합니다. 가미가제 특공대가 탄, ‘하늘의 사무라이’ 또는 ‘날아다니는 관(棺)’이라고 불린 ‘제로기(Zero fighters)’가 폭격됩니다. 소년은 지붕에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칩니다.

다시 얼마 후 소년은 아득히 멀리서 넓게 퍼져나가는 새하얀 빛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년은 그것이, 그가 그토록 살려보려고 애썼건만 살리지 못한 환자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빛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제국을 건설하려던 일본의 야욕을 산산조각 낸 빛이었습시다.

4,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뽀뽀 극적으로 극영화에 데뷔한,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하는 소년 짐은 마지막 피난길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꽃다발을 닮은 ‘낙하산 꽃들이’ 내려옵니다. 비상식량 꾸러미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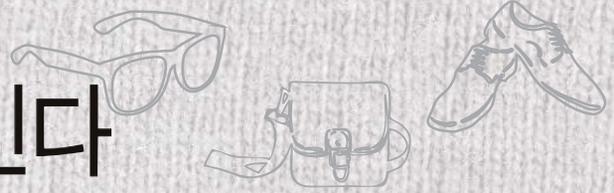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로마의 전술학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베기티우스의 이 명언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AF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인스타그램으로 '억'을 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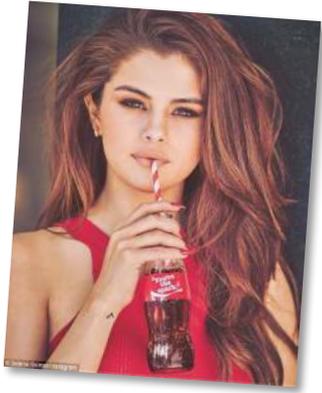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시대. 물론 개인적인 기호로 소셜 네트워크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중의 인기로 피고 지는 스타만큼은 예외죠. 그런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스타들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 '억' 소리 납니다.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계정에 일상이나 취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가장 대중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그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고, 팔로우하는 사람의 숫자는 인기와 비례합니다. 무대와 스크린 밖에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니, 스타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메신저'죠. 자다가 일어난 화장기 없는 추리닝 차림, 고양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스타들의(우리와 별 다를 것 없는) 모습에 대중들은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친근한 스타들의 일상 속에, 방송 각본처럼 짜인 '광고성 게시물'도 숨어 있습니다. 계정의 인스타그램을 추종하는 팔로어 수가 많을수록, 사진 한 번 올릴 때마다 스타는 수 억을 손에 쥘다는 사실. 대체 얼마나 버냐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 'Hopper HQ'에서 공개한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적표를 보시죠. 오로지 인스타그램 팔로어 숫자(계정을 구독하는 사람 수)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2017년 스타의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 성적을 산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협찬 광고' 게시물을 한 개 올려주고 버는 수익이 큰 순서입니다. 최상위 수입 스타들 다섯 명을 만나볼까요?





1위. 셀레나 고메즈 (팔로어: 1억 2천5백만 명)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통틀어 가장 많은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는 셀레나 고메즈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 개당 벌어들이는 수익도 가장 높습니다. 한 개의 사진을 올려주고 무려 **6억 1천 6백만 원**을 벌니다.

2위. 킴 카다시안 (팔로어: 1억 2백만 명)

래퍼 칸예 웨스트의 아내이자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4차원 가족 카다시안 따라잡기>의 출연자, 셀카의 여왕인 킴 카다시안이 2위. 그녀는 일 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의 1/4을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벌니다. 협찬 게시물을 한 번 올려주고 **5억 6천만 원**을 벌니다.



3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팔로어: 1억 1천만 명)

최고의 축구 선수, 호날두입니다. 그는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협찬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한 번 게시물을 올려주고 **4억 6천만 원**을 벌죠. 그만한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 2016년엔 호날두가 올린 '나이키' 게시물이 무려 329개, 그로 인해 나이키는 약 5천3백억 원의 광고 효과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 호날두는 나이키와 1조 2억 원대의 '종신' 광고를 체결합니다.

4위. 카일리 제너 (팔로어: 9천7백만 명)

2위인 킴 카다시안의 동생이죠. 협찬 광고 게시물 한 개당 무려 **4억 5천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여왕인 그녀는 인스타그램으로 인기를 얻어 자신의 이름을 딴 '카일리 코스메틱' 화장품을 런칭했습니다. 2016년 2월에 런칭해 1년 6개월간 무려 4천8백억 원의 매출을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인기! SNS 파워 덕분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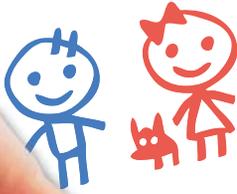


5위. 켄달 제너 (팔로어: 8천3백만 명)

지금 가장 잘나가는 패션 모델, 켄달 제너는 2위 킴 카다시안의 동생이자, 4위 카일리 제너의 언니. 패션 모델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인플루언서'인 언니와 동생보다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나 수익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협찬 게시물 한 개당 **4억 1천만 원**을 벌어들이죠.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 올리는 데 수익이 오간다고 하니 조금 허탈한 기분도 듭니다. 데이터 회사 'D'Marie Analytics'는 스타의 팔로어 수와 게시물을 올리는 빈도, 대중들의 댓글과 좋아요 수, 광고 링크 클릭 수와 구매 전환율을 모두 측정해 광고비를 도출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스타가 SNS에 광고글을 올리면 즉시 판매로 이어지므로 브랜드에서도 '수 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물론 판을 치는 광고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말 돈을 받고 올린 '협찬 광고'인지, 스타의 '소장품'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사진과 글이 대부분이니까요.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스타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광고로만 얼룩 진다면 머잖아 팬들도 등을 돌리고 말겠죠? **AF**



생각하는 그림

표정,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

#1 인간은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얼굴을 '캔버스', 그리고 표정을 '그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화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즐거움', '행복함'과 같은 밝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함', '괴로움'과 같은 어두운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 덕분에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표정은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표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호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은 그 덕분에 많은 인기를 얻는 반면에, 어두운 표정을 짓는 사람은 그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팀은 웃는 표정을 많이 짓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인관계가 긍정적이며,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웃는 사람을 보면 지켜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인상을 찌푸린 사람을 보면 지켜보는 사람의 기분 역시 나빠지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4 이렇듯 감정이 전염되는 것을 과학자들은 '감정의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앵거트 박사는 인간이 타인의 스트레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약 40% 정도 더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흔히 사람은 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때 이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생김새와 표정이 있을 것입니다. 생김새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선천적인 요인이라면, 표정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바뀌는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표정을 개발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란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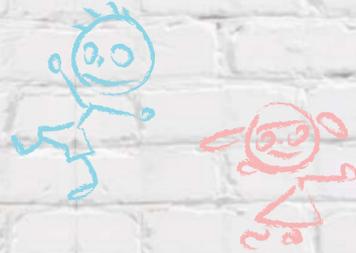


#6 일상생활에서 밝은 표정을 지어, 이를 상대방에게 전염시킨다면 보다 즐거운 삶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캔버스에 밝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AF



담벼락

그 신여덟 번째 이야기 「도서관」



책 아저씨



제11전투비행단
시설대대
상병 백두산



기억이 흐린 어릴 적, 내게는 잊지 못할 한 도서관이 있다. 집 앞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던 작은 도서관. 나는 그 도서관을 ‘책 아저씨’라고 부르며 찾아갔었다. 내가 문 앞에서 그렇게 부르고 나면 녹슨 소리가 울리며 열리는 문 안쪽에서는 언제나 계시던 ‘책 아저씨’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저씨는 아니었지.’ 하며 웃음이 나오지만 말이다.

그 아저씨는 항상 나를 ‘백씨’라고 부르며 어른처럼 대해주었다. 책을 읽고 있으면 ‘백씨, 책 읽어?’ 혹은 ‘백씨, 열심히 읽네.’라며 다가와 옆에 앉아 같이 책을 읽곤 했다. 이 도서관에는 위치가 위치인 만큼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는데, 그에 대해 ‘책 아저씨’는 ‘백씨를 위한 도서관이니까!’라며 호탕하게 웃곤 했었다. 그 웃던 모습만큼은 기억이 흐릿한 어린 날이지만 여전히 또렷이 기억난다.

‘책 아저씨’는 시간이 될 때마다 내게 옛날이야기 혹은 자신이 직접 지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쩌나 즐거웠던지 이야기를 듣다 집에 늦게 귀가하여 부모님께 혼나기 일쑤였다. 한 번은 큰 호랑이를 만났던 이야기, 또 한 번은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치 내가 그 소년인 것처럼 아저씨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에 나오는 대사를 외쳤던 것 같다. 아저씨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한 번씩 내게 ‘책이란 건 참 즐겁지 않니? 적절한 공간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거든.’이라는 비슷한 말을 꺼내며 내 머리를 쓰다듬곤 했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였을까. ‘책 아저씨’를 찾아가 평소같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아저씨가 마중을 나왔었다. 책가방을 메고 있는 내게 사탕 한 개를 쥐어주며 ‘백씨, 내일부터 도서관엔 안 와도 된단다.’라며 내게 말을 이었다. 내가 ‘어디가요?’라며 물어보았을 때 ‘백씨가 좋아하는 이야기 더 지으러 가자.’ 하며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 마중을 받으며 ‘나중에 또 봐요!’하며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에는 유난히 밝았던 달이 나를 따라오지 않았던 것 같다.

당연하게도 이 도서관이 다시 여는 일은 없었다. 내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도, 내가 글짓기로 상을 받아올 때도 나만의 도서관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나는 ‘책 아저씨’의 이름을 모른다. 어디사는지도, 누구와 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 있다. 이젠 고물상이 되어 버린 그 도서관에는 ‘책 아저씨’와 내가 함께 그려냈던 추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여전히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배우지도 않은 글짓기를 자주 했었다. ‘책 아저씨’의 적적함을 달래던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책 아저씨’와 그날의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도서관과 분홍 앞치마



제8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병장 김의겸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작은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였다. 책이 1000권기량이나 있었으니 말이다. 커다란 책장들과 책으로 가득한 거실에서, 때로는 바닥에 드러누워, 때로는 폭신한 소파에 기대 동화책부터 만화책, 위인전, 역사, 과학, 문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나이에 맞는 책들을 거의 다 읽어 흥미를 잃음과 동시에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서, 점차 독서를 멀리하게 되었다. 평생 독서 습관을 길러주시고 싶으셨던 어머니는 이런 나를 데리고 주말마다 도서관에 데려가셨다.

일반적인 도서관이었다면 어린 마음에 딱딱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독서할 수 있는 곳이었다. 책상보다는 편한 소파들이 많고, 비치된 컴퓨터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책들이 낮은 위치에 배열되어 있어서 책들을 마음껏 꺼내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원하는 책을 찾기 힘들 때가 많다는 게 문제였다. 그때마다 나를 도와준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커서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텄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그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꼬박 2년 동안 말이다.

처음엔 분홍색 앞치마가 어색했다. 하지만 쌓아놓은 책들을 차곡차곡 정리할 때, 꼬마부터 어른까지 책을 찾아달라 요청해서 그것들을 척척 찾아낼 때, 무엇보다 배열되어 있는 책들을 쭉 살피다가 도중에 잘못 위치한 책을 찾아낼 때 기분이 참 뿌듯했다. 사람들이 가득한 시간대에 봉사를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다가도, 운영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 권을 꽂는 '탁' 소리가 도서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은 참 상쾌하고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다.

독서퀴즈대회



제5공중기동비행단
259대대

병장 차지훈

초등학교 때 절친했던 한 친구 덕분에 방과 후 도서관에 자주 갔다. 교내에서 매년 한 번씩 진행했던 독서퀴즈대회 때문이었다. 운동과 스포츠 게임을 좋아했고 독서를 지루하게 생각한 나였기에, 처음엔 독서퀴즈대회 참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퀴즈대회 입상을 목표로 삼았던 그 친구의 권유에 의해, 친구를 따라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었다. 처음 도서관에 갔을 때는 30분도 못 버텼지만, 친구에게 쉽고 재밌게 책 읽는 법을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가 생기자 나 또한 대회 입상을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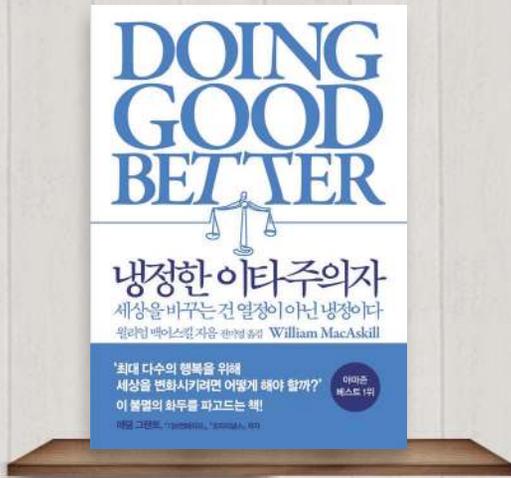
본선 대회를 앞두고 반 내에서 대표로 참가할 인원을 선정하기 위해 예선을 치렀고, 그 친구와 내가 공동 1등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학급에서 성적으로 1, 2등하는 친구들을 제치고 1등으로 뽑혔기 때문에, 대회 입상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났다. 독서엔 전혀 문외한이었던 내가 어쩌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겠다는 기적을 꿈꾸었다.

드디어 본선 당일. 약 50명의 학생들과 최후의 1인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매주 도서관에 갈 때마다 열심히 독서하고 있던 친구들 대부분이 본선 경쟁자로 나타났다. 그 친구들 못지않게 많은 양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 대회가 시작되었고, 10번 문제가 끝나자 반 이상이 탈락했다. 어려운 문제들이 슬슬 출제되면서 남은 사람은 10명 정도 되었고 조금만 견디면 우승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그 자신감도 잠시, 15번 문제에서 오답을 쓰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탈락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거 같아 속상했고, 혼자 오답을 쓴 것에 굴욕감을 느꼈다. 20번 문제에서 판가름이 났고, 같이 도서관에 다녔던 내 친구가 우승을 했다. 목표를 이뤄 행복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지만, 입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에 탈락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속독 능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고 독서할 때마다 모르는 단어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기도 했지만, 올바른 독서방법을 익히도록 도와주고 그 순간만큼 누구보다도 독서를 사랑하게 만들어 준 고마운 내 친구. 가끔 도서관에 들러 독서퀴즈대회를 위해 준비했던 책들을 보면, 그 친구와의 추억이 생생히 기억난다. **AF**



책 읽는 공군



냉정한 이타주의자 (Doing Good Better)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윌리엄 맥어스킬 지음
부키 펴냄

흔히 이타주의를 생각하면 온정과 따스함을 연상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사례들만 봐도 선의를 베푸는 자가 따듯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식으로 부각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옥스퍼드대 철학과 부교수 윌리엄 맥어스킬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심할 경우 도리어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그의 주장만 봐서는 의심이 듭니다. 타인을 도우는 행위 자체가 온정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의 말은 선행 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정만으로 실천한 선행은 수혜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자 특유의 철학과 기초 경제 개념을 통합해서 풀어쓴 책인 만큼, 독특한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용어는 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최대의 선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5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제공되는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방치되고 있는 분야는 없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성공했을 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처음 두 질문은 공익의 최대화를 염두한 것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선행의 여러 다른 경로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확률과 가치를 곱해서 나오는 예상가치, 즉 선행의 현실성과 파급력을 고려하는 질문입니다. 저자는 나아가서 기부를 할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의 비용효율성이 높은지,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는지를 기부의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부 단체들의 광고를 보면 주로 노약자들을 내세워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이 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의문을 가진다면, 즉흥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해당 단체의 역할이 수혜자들의 중요한 니즈를 충족하고 생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Doing Good Better’라는 원제가 뜻하듯, 선행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걸음입니다. 저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합니다. 통계는 연 평균 소득이 2만 5000불이 넘는다면 전 세계에서 상위 5퍼센트에 속하며 하위 20퍼센트는 하루 수입이 1.5불 미만인 절대빈곤선도 충족하지 못하는 극빈층이라고 보여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 볼일 없는 천 원짜리 지폐가 극빈층에게는 하루 수입에 맞먹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전부 아니며 주위 사람들, 넓게는 세계의 행복도 중요하며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F**

글
일병 장병오
정보체계관리단





2017

October
Vol.472

POSTCARD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도로명주소: _____

□□□□□



공군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을 응모해 주세요.

백일장 신아홉 번째 주제

하늘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seawhale98@af.mil

인 터 넷(E-mail) : afcmct@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공군이라면 누구나,
공군을 알고싶다면 누구나.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_____
- 월간 <공군> 10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_____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_____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_____

10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7

October
Vol.472

월간 「공군」 10월호

잘 읽고 정답은
상단 엽서에 적어주세요~

Quiz

마감일 : 10월 31일까지

1. 2016년 최우수 병영도서관으로 선정된 공군의 도서관은?
① 공군본부 도서관 ② 교육사령부 도서관 ③ 제1전투비행단 도서관
2. 2017년 8월 31일, 한반도 상공에 투입된 미해병대 스텔스 전투기는?
① F-15E ② F-35B ③ F-22

8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① 수탁교육 2. ②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당첨자 부산 사하구 이미정 / 경기도 오산시 김영재 / 전남 여수시 유지승 / 부산 동래구 김현우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1337

안보를 지키는 금메달

신고하는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Defense Security Command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험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④ 신고유형
간첩 / 테러범 / 외국스파이 / 군사기밀 유출 / 방산스파이 / 보안사고(위반) / 군관련 제보

⑤ 상금내역
간첩선·간첩 : 최고 20억원 /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 / 군 관련 제보 : 최고 5천만원

⑥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 영상공중전화 신고 '그린비' 및 'KT' 기본화면